

위치	오류유형	수정 전	수정 후
82~82p	해설	18 소비자의 효용함수는 $U=3X^{0.7}+Y^{0.2}$이며, X재 가격은 6, Y재 가격은 3, 소득은 120이다. 효용을 극대화하는 값의 최적소비조합(X, Y)은? ① (0, 60) ② (6, 42) ③ (30, 30) ④ (15, 15) ⑤ (30, 0) 정답해설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한계효율 균등의 법칙에 따라 최적의 소비조합을 선택해야 한다. 효용함수를 X재와 Y재에 대해 미분하여 한계효율을 구한 후 가격으로 나누어주면 각 재의 1단위당의 한계효율을 구할 수 있다. $MU_X = 6X^{-0.3} = \frac{6}{X^{0.3}}$, $MU_Y = 2Y^{-0.8} = \frac{2}{Y^{0.8}}$ 이 조건 하에서 효용을 극대화하는 값의 소비배합은 (0, 60), 또는 (60, 0), (0, 0), 30이하인 주어진 소득으로 구입할 수 있는 최적소비배합은 (0, 60)이다. 19 대물기간이 동일할 때 은행이 담보대출보다 신용대출에 더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는 이유는? ① 담보대출시 담보권 설정 등의 제비용을 고액이 부담하기 때문이다. ② 신용대출을 위한 은행의 자금조달비용이 담보대출의 경우보다 낮기 때문이다. ③ 정부가 담보대출시보다 신용대출시에 더 높은 세율(稅率)을 부과하기 때문이다. ④ 신용대출시 은행이 부담하는 채무불이행 위험이 담보대출시보다 크기 때문이다. ⑤ 은행이 신용대출에 적용되는 이자율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여 은행 이윤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서이다. 정답해설 대물이자율에는 위험프리미엄이 반영된다. 신용대출 이자율이 더 높은 이유는 담보대출보다 채무상환 불이행 위험이 더 크기 때문이다. 82 김장영가사 1차 경제학원론 기본서	갑의 효용함수는 원점에 대하여 오목한 형태인 타원형으로서 효용극대화는 내부해가 아니라 모서리부분에서 달성된다 . 따라서 예산선의 X축절편과 Y축절편에서의 효용을 구한 후 이를 비교하여 효용극대화지점을 파악할 수 있다 . 예산선은 $6X + 2Y = 120$이고, ① $X=20, Y=0$ 에서의 효용 $U=3\cdot 400+0=1200$ ② $X=0, Y=60$ 에서의 효용 $U=0+3600=3600$ 따라서, 효용을 극대화하는 갑의 최적소비조합 (X, Y)은 (0, 60) 이다.
234~234p	해설	13 10가구만 살고 있는 마을에서 공공재를 생산하고자 한다. 이 공공재에 대한 개별가구의 수요함수는 $Q=100-10P$로 동일하고, 이 공공재 생산의 한계비용은 5로 일정하다. 이 마을의 사회적 후생을 극대화시키는 공공재 생산량은? (단, Q는 수요량, P는 가격) ① 50 ② 95 ③ 125 ④ 250 ⑤ 500 정답해설 공공재의 시장수요함수는 개별수요함수의 수직적 합제이다. 개별수요함수 $Q=100-10P$를 다시 정리하면 $P=20-\frac{1}{10}Q$이다. 10가구가 있으므로 개별수요함수를 수평적으로 합제하면 시장수요함수는 $P=20-Q$이다. $P=MC$에서 최적생산량을 구할 수 있다. $20-Q=5$에서 $Q=15$이다. 14 X재의 생산으로 오염물질이 발생한다. X재의 수요곡선은 $P=30-Q$이고 사회 한계비용(social marginal cost, PMC)은 $PMC=Q+30$이다. X재의 생산으로 사회 한계비용에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한계피해(social marginal damage, SMD)은 $SMD=2Q+10$이다. 이 경우 X재의 사회적 최적 생산량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부과해야 하는 총량세의 크기는? ① 10 ② 20 ③ 30 ④ 40 ⑤ 50 정답해설 X재의 사회적 최적 생산량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계피해액 SMD와 외부한계비용 EAC의 인권을 중화세(Pigouvian tax)로 부과해야 한다. $EAC=PMC+SMD=Q+30+2Q+10=3Q+40$이다. 최적생산량을 구하기 위해 수요곡선과 인당외부 비용 $50-Q=3Q+40$에서 $Q=10$이 된다. 이를 SMD에 대입하면 $SMD=2Q+10=30$이다. 즉 단위당 30의 중량세를 부과하면 최적 생산량을 달성할 수 있다. 234 김장영가사 1차 경제학원론 기본서	수평적으로 를 수직적으로 로 변경
		수정 사유	해설 오류

위치	오류유형	수정 전	수정 후
354~354p	개념, 공식-설명	③ 통화론자 ④ 통화론자(Monetarista)는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안정적이기 때문에 따라서 경제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개입은 경제를 오히려 불안정하게 만든다는 입장이다. ⑤ 통화주의자는 투자의 이자를 탄력성 큰 크기 때문에 LM곡선은 완만하고, 반면 화폐수요의 이자를 탄력성은 거의 0에 가까우므로 LM곡선은 수직에 가깝다고 본다. ⑥ 따라서 재정정책은 구축효과로 인해 효과가 별로 없고, 통화완급의 일정한 준칙(money supply rule)을 도입하는 금융정책의 효과가 크다고 주장한다. ⑨ 논쟁 결과 ⑩ 경기침체시에 아주 낮은 이자를 수준에서는 LM곡선이 수평선에 접근하고, 완전고용국면소득 수준에 가까워짐에 따라 LM곡선은 점점 가파르게 된다. 그러다가 완전고용국면소득 수준에 이르면 LM곡선은 수직선이 된다. ⑪ 여기서 LM곡선이 수평인 부분을 케인즈 영역, 우상향하는 부분을 중간영역, 수직인 부분을 고전학과 영역이라고 한다. ⑫ 케인즈 영역에서는 재정정책만이 효과가 있고, 중간영역에서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모두 효과가 있고, 그리고 고전과 영역에서는 통화정책만이 효과가 있다. ⑬ 따라서 경기가 침체상태에 있을 때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확대재정정책을 통해 경기를 회복시키고, 경제가 완전고용 수준에 이르면 정부의 개입을 줄여 시장경제 원리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하다는 것이다. 4. 피구효과 354 354 (1) 피구효과와 의미 피구효과(Pigou effect)는 피구가 고전학파의 입장에서, 케인즈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유효성 주장에 대한 반론으로 제시한 것이다. (2) 케인즈의 견해 ① 케인즈는 대공황과 같은 경기침체상태에서 나타나는 유동성 함정에서는 통화정책은 효과가 없고 재정정책만이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확대재정정책으로 대량의 실업을 구제하고 국민소득을 증가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② 이에 대해 고전학파의 전통을 유지하는 피구(A. Pigou)는 피구효과, 또는 실질잔고효과(real balance effect)를 제시하여 반론을 제기한다.	LM으로 변경
		수정 사유	오타 수정
361~361p	오타	(2) 단기 AS곡선이 우상향하는 이유 361 361 ① 확장효과 : 물가수준의 하락을 361 361 하락으로 잘못 인식하여 공급자들이 제하와 서비스의 공급량을 줄이게 되기 때문에 물가가 하락하면 공급량이 감소하는 것이다. ② 임금결정착점 이론 ③ 단기에는 명목임금이 경직적(sticky)이고 자유롭게 변동하지 않기 때문에 AS곡선이 우상향한다. ④ 즉 물가가 변동할 때 임금은 즉각적으로 변동하지 않기 때문에, 물가수준이 낮아지면 고용과 생산의 수직성이 하락하여 기업들이 제하와 서비스의 생산을 줄인다는 것이다. ⑤ 가격결정착점 이론 : 물가수준이 예상보다 낮으면 일부 기업의 가격이 비합리적인 수준보다 높아 판매가 감소하고 이에 따라 생산을 줄인다. ⑥ 루카스 공급함수 ⑦ 세 가지 이론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 논란이 있지만 공통점이 있다. 즉 실제물가가 사람들이 예상한 수준과 다르면 산출량이 자연산출량과 달라진다는 사실이다. ⑧ 이는 다음과 같은 루카스(Lucas) 공급함수로 표시할 수 있다. 여기서 Y_p는 자연산출량, P^e는 예상 물가수준을 나타낸다. 그리고 α는 산출량이 예상하지 못한 물가수준 변동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를 나타낸다. $Y = Y_p + \alpha(P - P^e)$ ⑨ 즉 물가가 예상한 수준보다 높으면 산출량이 자연산출량을 초과하고, 물가가 예상한 수준보다 낮으면 산출량이 자연산출량에 미달한다는 것이다. (3) 단기 AS곡선의 이동요인 ① 단기 AS곡선이 이동하는 요인은 장기 AS곡선이 이동하는 요인에 더하여 화가, 경제적 임박, 정치적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예상물가수준이라는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 ② 따라서 단기 AS곡선은 노동, 자본, 자연자원, 기술지식의 변동에 의하여 예상 물가수준이 변화하면 이동한다. 제0장 AD-AS에 의한 국민경제의 균형 1. 국민경제의 일반균형 (1) 일반균형의 의미 한 경제를 구성하는 모든 시장이 동시에 균형을 이룰 때 이를 일반균형이라고 한다. 즉 생산물 시장과 화폐시장, 노동시장, 증권시장이 동시에 균형을 이루는 경우 이를 국민경제의 일반균형이라고 한다. (2) AD-AS의 균형 361 361 ① 이미 본 바와 같이 AD곡선은 생산물시장과 화폐시장, 즉 수요측면의 균형을 나타내고, AS곡선은 공급측면의 균형을 나타낸다. ② 따라서 AD곡선과 AS곡선이 교차하는 곳에서 한 경제의 균형 물가수준(P)과 균형 실질국민소득 수준(Y)이 결정된다. Chapter 06 총수요 · 총공급 이론 361	상대가격으로 변경
		수정 사유	오타 수정

위치	오류유형	수정 전	수정 후
362~362p	개념, 공식-설명	2. 각 학파의 견해 (1) 고전학파 AS 곡선이 수직이므로 산출량(실질국민소득)은 AD 곡선에 관계없이 AS 곡선에 의해 결정되고, AD 곡선은 AS와 결합하여 물가수준을 만들 결정한다. (2) 케인즈의 고정물가 모형 아주 낮은 물가수준에서 AS 곡선이 수평이므로, 따라서 국민소득은 AD 곡선의 변동에 의해 결정된다. 즉 총수요가 증가하여 AD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물가상승 없이 산출량의 증가가 이루어진다. (3) 케인즈의 변동물가 모형 변동물가 모형에서는 AS 곡선이 우상향하므로 물가수준과 국민소득은 AS 곡선과 AD 곡선의 교차점에서 결정된다. (4) 종합적 이해 AS 곡선이 수평인 부분을 케인즈 영역, 우상향하는 부분을 중간영역, 수직인 부분을 고전학과 영역이라고 한다. ① 케인즈 영역 ① 극심한 불황에는 AS 곡선이 수직이면 물가상승 없이 국민소득 증가가 가능하므로 실효적이 있다. 즉 이 경우 총수요(AD)가 증가 하면 물가상승 없이도 국민소득 증가가 이루어진다. ② 따라서 정부지출이나 세금줄이 증가하거나, 조세가 감소하면 총수요(AD)가 증가하여 물가상승 없이 국민소득이 증가한다. ③ 중간 영역 : 중간영역에서는 총수요(AD)가 증가하면 물가상승과 동시에 국민소득이 증가한다. ④ 고전적 영역 : 완전고용국민소득 수준에 이르면 총수요(AD)가 증가해도 물가만 상승하고 국민소득의 증가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AS로 변경	
		수정 사유	오타 수정
383~383p	오타	CHAPTER 07 실업과 인플레이션 출제포인트 □ 실업률 □ 각 실업의 특징과 원인 및 대책 □ 인플레이션의 유형 □ 월립스 곡선 □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 □ 경제활동참가율 및 고용률 계산 □ 인플레이션의 조제 □ 자연실업률 이론 □ 오픈의 법칙 07 실업 1. 실업의 의미 (1) 실업의 뜻 ① 실업(unemployment)은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② 따라서 사회적으로는 유용한 생산자원의 유휴, 낭비를 의미한다. 실업이 있는 경우의 GDP는 잠재 GDP보다 작게 된다. (2) 실업에 대한 관심 ① 고전학파는 임금, 물가의 신축성을 가정하므로 따라서 항상 완전고용이 이루어지고 실업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인다. 즉 현실의 실업은 모두 자발적이라는 고전적 노동조합의 입장으로 임금이 경직적이라면 실업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다. ② 그러나 1930년대 대공황을 계기로 고전학파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었고 케인즈 경제학이 등장하였다. ③ 케인즈 경제학은 대공황으로 인한 대량실업의 해법을 목적으로 등장하였다. 케인즈는 총수요가 부족하여 생산이 완전고용 수준 이하에 머물면 비자발적 실업(voluntary unemployment)이 존재할 수 있음을 보였다. 것이다.로 변경	
		수정 사유	오타 수정

위치	오류유형	수정 전	수정 후
386~386p	개념,공식-설명	(2) 구조적 실업대책 인력정책 ① 구조적 실업은 인력정책(human power policy), 즉 노동력에 대한 수요변화에 따라 노동력의 공급구조를 변화시키는 정책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② 인력정책 ㉠ 직업 소개 및 보도 등 취업 알선 ㉡ 교육, 훈련 및 재훈련 ㉢ 노동자의 지역적 이동을 촉진하는 방안 등 노동의 이동성(mobility)을 증대시키는 정책 포함 5. 실업의 존재이유 (1) 구조적 실업에 대한 새로운 설명 현실적으로 실업은 임금이 시장의 균형임금보다 낮게 유지되는 경우에 발생한다. 임금이 낮기 때문에 기업의 노동수요량보다 노동자의 노동공급량이 많고 따라서 노동의 초과공급량, 즉 실업이 발생하는 것이다. (2) 높은 임금이 나타나는 이유 임금이 시장의 균형임금보다 높게 유지되는 이유로 맨큐(G. Mankiw), 크루그먼(P. Krugman) 등은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① 최저임금제 ㉠ 최저임금(minimum wage)은 시장의 균형임금보다 높게 설정되므로 노동의 초과공급량, 즉 실업을 발생시킨다. 최저임금제가 전체 실업의 주된 원인은 아니지만 숙련도와 경험에 부족한 계층의 실업을 설명하는 데는 설득력이 있다. ㉡ 노동수요의 임금탄력성과 노동공급의 임금탄력성이 비탄력적일수록 최저임금으로 인한 실업은 적게 발생한다. ② 노동조합과 단체교섭 ㉠ 노동조합은 일종의 카르텔(cartel)이다. 노동조합이 임금을 균형임금 수준 이상으로 인상하면 노동의 공급량은 높고 수요량은 감소하여 실업이 발생한다. ㉡ 노동조합은 내부자(Insiders)와 외부자(outsiders) 사이의 갈등을 야기하고,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지 않은 직종을 임금을 하락시킨다. ③ 효율임금 효율임금 ㉠ 효율임금(efficiency wage)은 기업이 균형임금보다 더 높은 임금을 지불하면 효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노동의 초과공급이 있는 경우에도 높은 임금을 유지하는 것이 기업에게 더 이익이라는 것이다. ㉡ 효율성 임금 이론은 균형임금보다 높은 실질임금이 노동자의 생산성 또는 근로의욕(work effort)을 높일 수 있다고 관측한다. ㉢ 그 이유로는 높은 실질임금은 이직률을 낮춘다는 노동자의 모델(labor turnover model), 높은 실질임금은 노동자의 근무태만이나 태업을 방지하여 생산성을 방지하여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태만방지 모델(shirking model), 노동의 생산성에 대한 정보가 비대칭적으로 존재할 때 효율성 임금이 노동의 평균적인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역선택 모델(adverse selection model) 등이 제시되고 있다.	생산성을 방지하여 부분 삭제
		수정 사유	오타 삭제
456~456p	개념,공식-설명	▶ 관세부과의 효과 ① 산출량 증가효과: 관세를 부과하면 국내생산량은 Q_0, Q_1 만큼 증가하고 고용도 증가한다. 이를 관세의 고용증대 효과, 국내산업 보호 효과라고 한다. ② 소비자지대효과: 관세가 부과되어 수입상품의 국내가격이 높아짐에 따라 Q_0, Q_1 만큼 국내소비자 감소한다. ③ 재정수입 증대효과: 정부의 재정수입이 사각형 D만큼 증가한다. ④ 국제수지 개선효과: 관세부과로 수입이 Q_0, Q_1 만큼 감소하여 수입액도 $P_0 \times Q_0 - P_1 \times Q_1$ 만큼 감소하는데 그만큼 국제수지가 개선된 것이다. ⑤ 국역조건 개선효과: 관세가 부과되면 국역조건은 개선된다. ⑥ 소비자 잉여 및 사회후생의 손실효과: 관세가 부과되면 수입상품의 가격이 P_1으로 상승하므로 소비자 잉여는 $C+E+D+F$만큼 감소한다. 그러나 이중 C만큼은 국내 생산자 잉여의 증가, D는 재정수입이므로 사회후생의 순손실(deadweight loss)이 $E+F$만큼 발생한다. ⑦ 소득의 재분배효과: 관세 부과로 소비자 부담은 증가하지만 생산자나 정부는 이익을 본다. 따라서 관세는 소득을 소비자로부터 정부와 생산자로 재분배한다. (3) 탄력관계제도 탄력관계제도는 국제경제의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세율의 범위를 정해놓고 필요에 따라 관세율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한다. ①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ies): 수출국이 수출산업에 주는 수출 장려금, 보조금을 상계하기 위한 관세이다. ② 보복관세(retaliatory duties): 상대국이 자국의 수출상품에 대해 차별대우를 하는 경우, 상대국의 수입상품에 대해 보복적으로 부과하는 관세이다. ③ 반덤핑관세(anti dumping duties): 생산량이 이하로 수출하는 수출국의 상품에 부과하는 관세이다. ④ 기타: 긴급관세, 물가평형 관세, 관세할당제 등이 있다.	관세가 부과되면 수입상품의 가격이 P1으로 상승하므로 소비자잉여는 B+E+D+F 만큼 감소한다. 그러나 이중 B 만큼은 국내 생산자 잉여의 증가, D 는 재정수입이므로 사회후생의 순손실(deadweight loss)이 E+F 만큼 발생한다.
		수정 사유	오타 수정

위치	오류유형	수정 전	수정 후
----	------	------	------

도서의 오류로 학습에 불편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더 나은 도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시대교육그룹이 되겠습니다.